

## 불교콘텐츠 진흥 종단이 결심할 때

TV드라마 '뿌리깊은나무'가 인기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반포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된 한글은 콘텐츠를 담은 그릇이었다. 세종은 그 그릇에 부처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처음 담았다. 이유는 불교가 고려를 지나며 백성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꼼수다'가 세상을 바꿨다고들 말한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유포된 이 콘텐츠가 대중에게 전한 메시지는 국익이라는 오래된 가치와 MB정권에 대한 투쟁을 조율해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것들과 비교해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며,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가우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한국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부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종단의 기조와 역할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불교적 가치를 콘텐츠에 넣는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그러나 아직 논의의 장이 공론화되지 않았다. 기조를 수립하는 종단의 입장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부서 및 월별로 대응하고 있으나 종단의 역량이 분산될 뿐 뉴미디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팀장도 "종단이 생산 주체나, 생산을 위한 후원자나, 아니면 두

### 뉴미디어 환경 기술 대응보다 불교 가치 선별 과정 시급

가지들을 모두 아우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한곤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도 종단이 정책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도적인 정비와 종단 내 전문성을 확보한 핵심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종단 내에서 불교 문화콘텐츠 진흥의 중심점이 되고 불교계와 학계, 사회, 산업을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이끌 (가칭)불

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수 연구원은 센터가 융복합 콘텐츠 창작진흥기관으로서의 자기좌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립과 창작 지원,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은 기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도 종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에서 불교계가 '대장경'이라는 훌륭한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가 종단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전 스님은 "종단에서 할 일의 범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열린 출판 구조(Open Publishing Platform)를 구축해 누구나 콘텐츠를 올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종단이 이것으로 수익을 올릴 일은 없다. 돈이 된다면 개발자들이 알아서 모여들 것이고 종단은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진제·고산 스님 중 누가?

14일, 조계종 종정 추대

조계종 최고어른인 종정이 새롭게 추대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현 종정 법전(法傳·84) 스님을 잇는 제13대 종정을 추대한다.

종정은 5년 임기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전 스님은 11·12대 종정을 연임해 2012년 3월 임기가 끝난다. 종정추대회의에서는 법랍 45세, 연령 65세 이상 대중사스

님을 대상으로 종정후보를 선출해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차기 종정 후보로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과 쌍계사 조실이자 조계종 전계대회상인 고산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진제 스님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사로, 고산 스님은 대표적 율사로 알려져 있다.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54년 해인사로 출가해 석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해 금모선원 조실로 추대된 이후 선학원



진제 스님



고산 스님

중앙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등을 맡고 있다.

고산 스님은 1934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6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8년 동산스님을 계사

로 사미계를, 1956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사를 비롯해 은해사, 쌍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98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부터 전계대회상을 맡아 조계종 단일계단의 계맥을 전수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다시 오소서" ... 묘엄 명사 영결식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큰어른인 묘엄 스님(봉녕사 승가대학장)이 12월 2일 오전 9시5분경 수원 봉녕사에서 법랍 67년, 세수 80세로 원전에 들었다. (인터넷 현불뉴스 2일자 보도)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6일 수원 봉녕사에서 엄수됐다. 묘엄 스님은 입적하면서 "마음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받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으라는 말씀과 "자기를 단속하여 인천의 사표가 되고 생사에 자재하여 중생을 제도하라"는 유훈을 남겼다. <관련기사 4면>



종이꽃으로 피어난 연화 세상

연등회보조위원회는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지화정면승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정명 스님을 추대한다 이어 1층 로비에서 '종이로 피어나다, 전승전통 및 불교지화展'을 개막했다. 지화전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영담 스님과 종단 관계자들이 출품된 김태연 대구대 교수의 작품 '연화(雲花)'를 비롯해 통해 삼화사 수륙재 장엄으로 쓰인 지화 모란 부채난 등 등을 보고 있다. 전시는 22일까지 계속된다. <관련기사 3면> 글=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1년여 대토론회 결산 자리

2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한국불교종흥을 위해 대중 공의를 모으고자 1년 동안 열려 온 대토론회를 결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불교종흥을 위한 실천과제-대토론회 종결산'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교육원장 현용 스님이 기조발제 '한국불교 종흥의 길을 향하여'를 통해 11회에 걸친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종단 혁신과제들을 제

리한다. 대표토론에는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범등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기학실장 정만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장 및 책임자가 참석해 기관별 실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대토론회의 종합말씀도 예정돼 있다.

대토론회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복합물·침향염주·침향전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문서 02-3663-6777 www.nihwa.com

## 866호 CONTENTS

|                                                 |    |
|-------------------------------------------------|----|
| 종단<br>평화선언 찬반논란 쇠신 불시되나<br>도법·법용 스님 공개 편지       | 2  |
| 사회·NGO<br>10·27 법난 심의위 파문<br>법륜 스님 100일 강연 후 출국 | 3  |
| 나눔<br>여성의 전화 진원 스님 장관상                          | 6  |
| 현장속으로<br>한마음과학원<br>안산 교잔고에서 '아버지마당'             | 18 |
| 문화<br>미술, 당대의 거장들<br>불교와 소통하다                   | 21 |

# 대한불교원효종 재교부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 일들이 부처님의 자온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각 신문사를 통하여 수차례 재교부 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 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하오니 아직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다수 있어 이에 중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재교부 공고를 하오니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 접수기간 : 2555(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2011년 12월 30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각 교구종무원
- 문 의 처 : 02)735-0501, 0502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